

미키 가문 주택은 1655년 후쿠사키로 이주한 오조야(에도시대의 지방관리)의 저택이었습니다. 저택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1697년에 세워졌으며, 이후 20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축되었습니다. 1874년 새롭게 ‘이쿠노 광산로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을 부설하면서 정문과 남쪽 벽이 이전되었습니다.

저택은 다양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지어졌는데, 예를 들어 미닫이문에 있는 나무 열쇠, 칼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는 낮은 천장, 파수꾼이 긴박한 집회를 감시하기 위해 낸 많은 구멍 등이 있었습니다. 1871년 메이지 정부의 정책 변경에 반대하는 지역민들이 저택을 습격했고, 이 때 생긴 칼자국이 지금도 응접실인 오모테자시키 ‘가미노마’의 기둥과 킷마루에 남아있습니다.

1972년 미키 가문 주택은 효고현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대규모 보수가 실시되었으며 최대한 본래의 자재를 재이용해 안채를 복원했습니다.